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梁京柱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朴炳春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 514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4년 11월 8일 화요일

1

『교수계획서』등 발간 수강신청 편의 위해

9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이 지난 7일부터 각 학과별로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수업과(과장 김명섭)에서는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강편람』과 『교수계획서』를 발간, 배부하고 있다.

『수강편람』에는 △95학년도 제1학기 학사일정표 △교과목 이수방법 △수강신청 △학생생활 및 가사유가 △시험 및 성적관리 △제정수업 △수업관련 교수 연구활동 △교양교과목 및 교과목 개요 △2학기 수업시간표 등이 실려있다.

또한, 『교수계획서』에는 95학년도 1학기 교양 및 교직과목의 강의내용이 실려있어 학생들이 교양·교직과목을 선택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록사 사생모집

14일부터 19일까지

백록사(사감장 현진오 수학교육과 교수)에서는 95학년도 1·2학기 기숙사생 1백65명(남학생)을 오는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동안 모집한다.

백록사 발표에 의하면 95학년도 백록사 입사를 희망하는 학우는 기간내에 입사원서·추천서·성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서약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백록사상담실로 제출해야 한다.

백록사 입학생은 사생선발지침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게 되며 입사합격자는 95년 1월9일 기숙사본관 게시판에 발표된다.

백록사 입사희망자에 대한 면접은 오는 11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기숙사 사감장실에서 실시된다.

한편 기숙사비는 연간 18만원(식비제외)이다.

총학후보 정책설명회 3차례 개최 중선위 합동연설회 15·22일 열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윤석 수석2차 이호준)는 지난 11월4일 두번째 열린 선거사무장 회의에서 합동연설회와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 시기와 방법, 선거비용 공개 문제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발표했다.

이날 선거사무장회의에서는 차기 총학생회장 선거가 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동연설회는 정=20분 부=15분, 지원유세=10분, 문예공연=15분 등 한팀이 총 1시간이내에 마치도록 제한했고, 지원유세 방법은 양측 후보자 자유훈로 맡기로 결정했다.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각 입후보자는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를 세차례 가져야 하는데 정책기조는 각 후보측에서 1명의 대표가 나와 20분 이내에 발표를 해야하며 한 후보측에서 정·부 후보자 외 2명이 참석,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서 특히 일반학생들이 각 후보자의 정책에 질의하기에 앞서 중선위에서 임의 지정한 중개토론자들이 먼저 정책질의의 사례를 보이도록 하고 있다. 중개토론자는 총학특별자치기구(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지역조사위원회, 한라산 편위위원회)에서 1명, 단과대 선관위장중 1명, 과학생회장 중에서 1명, 각 학년대표 1명, 언론사기자 1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중선위의 지시에 따라 정책질의에 나서게 된다.

선거시행세칙에는 각 후보자들이

이 선거비용을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공개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은 관계로 양측 후보자 임의대로 대자보를 통해 학우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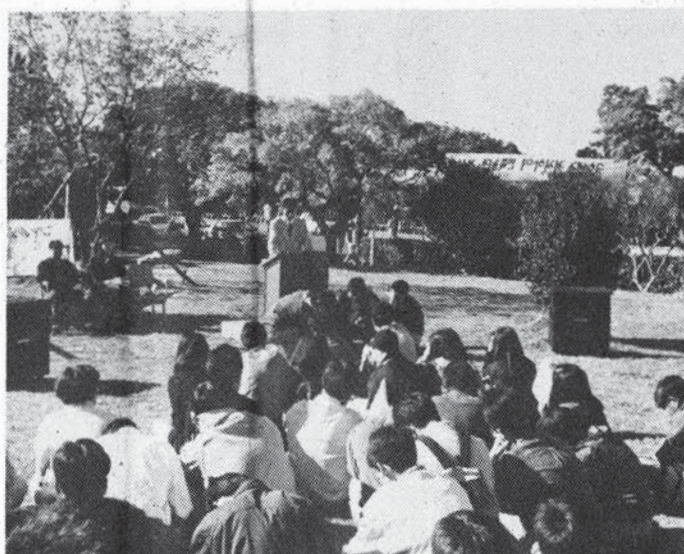
이밖에 투·개표시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야간강좌부에서 투표하는 동안 개표가 시작됨으로써 개표현황이 야간강좌부 학우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감안해, 올해는 야간강좌부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개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 선거가 더욱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동문회나 어떤 모임에서도 선거운동을 전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만약에 그런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중선위에서 경고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대자보를 통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지난 11월4일 강중우(농경제 2)학우와 김미란(경제 2)학우가 11대 대의원회 정·부의장에 단독 입후보 함에 따라 모든 자치기구의 입후보자 등록이 최종 마감됐다.

총학생회 입후보자 합동연설회와 정책설명회 및 토론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합동연설회 △1차=11월15일, 오후 3시, 아외음악당 △2차=11월22일, 오후 3시, 한라터

▲정책설명회및 토론회 △1차=11월17일, 오후 4시, 자연대 세미나실 △2차=11월18일, 오후 6시 30분, 법정대 중강당, △3차=11월21일, 오후 4시, 법정대 중강당.



◇11월8일 4동앞 잔디밭에서 있었던 농과대 차기 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소견발표 모습.

교수공채 지침 부분 개정 전원합의제 → 평점제로 전환등

지난 9월에 있었던 교육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심사위원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학과 심사위원회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임교원 신규채용을 위한 전형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지난 10월25일 인사학무회의를 통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전원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학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을 각 심사위원별 평점제로 전환하고 △심사기준을 자격심사와 전공심사로 구분

해, 자격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전공 및 연구실적에 상관없이 제외된다. 또한 △학과 심사위원회의 자격심사시 해당 대학의 학장과 교무과장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키고 △연구실적을 심사시 논문주제, 게재분야와 일치되는지 확실한지 확인하며 △교육 및 연구경력 심사에 있어서는 이전의 전임감사와 조교수의 경력을 1년씩 상향 차등조정했다.

그 성과는 법사지위를 비롯한 제주목 관자지 발급, 고산리 유적 발굴 등 그 어느때보다 활발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비는 2백34억9천5백84만여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제주도보조비는 지난해와 다름이 없어 전국 보조비에 대한 제주도 보조율은 3.76%로 줄어 들었다. 94년 국고보조비는 8억6천만57만여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전국 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는 2백83억3천4백58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국과 대비한 제주의 보조율은 3.05%로 크게 줄었다.

한편 최근 몇년동안의 제주지역 문화유적·유물에 대한 발굴작업

연구소장등 새로 임명 부교수 7·조교수 9명 승진 발령



◇윤정수



◇고경표



◇김태곤

교무처(처장 김범국 경영학과 교수)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해양연구소장에 윤정수(해양학과)교수,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에 고경표(무역학과) 교수, 출판부장에 김태곤(국어교육과)부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신임 연구소장 및 출판부장은 오는 96년 10월30일까지 2년동안 보직을 수행하게 된다.

새 보직교수들의 주요약력은 다음과 같다.

▲윤정수 해양연구소장
△77년 공주사범대학 지구과학과 졸업 △87년 고려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81년 제주대학 전임강사 △93년 교수승진 △89년 해양대 학생과장 △92년 해양학과장.

▲고경표 지역사회발전연구소장
△71년 제주대 상학과 졸업 △76년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취득 △94년 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으로 △82년 제주대학 전임강사 △94년 교수 △85

년 사회과학대 학생과장 △88년 경상대 교무과장.

▲김태곤 출판부장
△76년 중앙대 국문학과 졸업 △81년 인하대 문학석사학위 취득 △90년 중앙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 △84년 제주대학 전임강사 △90년 부교수 △91년 국어교육과장.

또한 교무처는 지난 10월1일자로 부교수 7명과 조교수 9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박찬문(사학과), 최규일(국어교육과), 강정우(과학교육과), 강영길(농학과), 소인섭(원예학과), 송석준(수학과), 김귀식(기계공학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 허춘(국어국문학과), 이준백(해양학과), 방익찬(), 김덕수(화학과), 임재운(통신공학과), 이재영(에너지공학과), 박재우(), 이민규(화학공학과), 박태수(학생생활연구소).

제14회 백록학술상 마감연기

- 분 야: ○주제논문(70매 내외)
-제주도의 사회변동 및 개발에 관한 내용
○일반논문(70매 내외)
-인문사회, 자연과학분야
- 시 상: ○주제논문 당선작 1편-50만원
○일반논문 당선작 각 1편-50만원
- 응모마감: 11월19일(토)
- 제 출 처: 대학원동(구 학생회관) 3층 본사편집국
(동기우편인 경우에는 '백록학술상작품'임을 명기할 것)
- 당선작발표: 추후 공고
- 기 타: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 54-2278, 2279)

제대신문사

둘하르방

지명문화유산의 출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이 말은 '나의문화유산답사기'로 국민들의 대부분을 '국토 박물관에 대한 사랑의 지지자'로 변모시킨 유희춘 교수의 말이다.

우리는 그의 책에서 이제까지 죽어있던 문화유산의 부활을 보았

고 그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를 눈을 뜨게 되었다. 어떤 사물이건 그의 눈에 포착되면 하면 그것은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것은 그의 높은 관찰력과 상상력, 표현력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뛰어나게도 유교수의 국토에 대한, 우리문화유산에 대한 가슴으로부터의 절절한 사랑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라.

문화유산에 대한 사랑을 세심하게 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사건건 불합리한 지역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이번에는 문화유산 발굴·보존 경비마저

중앙에서 삭감당해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6일자 제주신문 1면에는 '문화재 보수정비 제주지역 국고보조, 전국대비 매해 감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내용인 즉, 제주도에 보물 사적 민속자료 천연기념물 지방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위한 국고보조비가 전국 국고 보조총액과 비교해 92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문화체육부가 국회에 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윤수(민주)의 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2

년 국고보조비는 8억8천4백만원으로 전국 보조비 2백17억83만5천원의 4.07%에 불과했고 93년도 전국 보조비는 2백34억9천5백84만여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된 반면 제주도보조비는 지난해와 다름이 없어 전국 보조비에 대한 제주도 보조율은 3.76%로 줄어 들었다. 94년 국고보조비는 8억6천만57만여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전국 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는 2백83억3천4백58만원으로 크게 늘어 전국과 대비한 제주의 보조율은 3.05%로 크게 줄었다.

한편 최근 몇년동안의 제주지역 문화유적·유물에 대한 발굴작업

수강신청공고

9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수강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강일: 1995. 3. 3.
2. 수강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대 상	장 소
수강신청기간	'94. 11. 7~11. 19.	재 학생	각 학과
수강신청 변경 기간	'95. 3. 3.~ 3. 9.	변경사유 발생자	"

3. 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가. 교필 및 전필은 수강신청 서식에 미리 기재하였으나 선택교과목만 수강신청(복학자는 중전 방식, 수강자가 교필 및 전필을 타과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후 여백에 타과목으로 신청 가능)
- 나. 재학생 전원은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일절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다. 수강신청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수강신청한다.
- 라. 수강신청서 작성은 관련자료 및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수강편람, 교과목 개요, 교과과정 개설표, 수강반일람표, 수업시간표)
- 마. 수강신청서는 소속학과로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바. 수강신청 변경은 학적초과 취득대상자, 학점제한 취득대상자, 폐강교과목 신청자 수업시간 및 수강반(합·분반)조정으로 인한 수업시간 중복자, 전산입력착오자에 한하여 변경기간 중에 허가하며,
- 사. 타학과 교과목(일반선택 교과목) 및 체육실기 교과목(볼링, 테니스,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소프트볼, 리듬운동)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교과목은 삭제 조치할 방침이며,
- 아. 수강신청 변경기간 후에도 시간중복자 발생시는 중복교과목을 삭제할 방침이니 시간중복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 차. 당초 취득한 성적은 재이수 신청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므로 신청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업시간표
전학년(교양, 전공)수업시간표는 각 대학별로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994. 11.

제 주 대 학 교 총 장

사생모집공고

1995학년도 학생기숙사(백록사)사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코자 공고합니다.

1. 선발인원: 재학생 165명 (각학년별 55명 기준)
2. 입사기간: 1995학년도 제1, 2학기 (1년)
3. 입사자격: 제주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 제14조 및 15조에 의함
4. 신청서류
가. 입사원서 나. 추천서 다. 성적증명서
라. 주민등록초본 마. 서약서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4. 11. 14 (월) ~ 11. 19 (토) 6일간
6. 면접전형일시 및 장소
가. 기 간: 1994. 11. 21 (월) ~ 11. 24 (목) 4일간
나. 시 간: 09:00 ~ 17:00 (점심시간 제외)
다. 장 소: 학생기숙사 사감장실
7. 선발자 발표일: 1995. 1. 9 (월) 기숙사 본관 게시판
8. 선발방법: 학생기숙사 사생선발지침에 의거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9. 입사결정의 취소
가. 미등록자 나. 허위서류 제출자
다. 전염성 질환자 라. 기타 부정입사자
10. 퇴 사: 학생기숙사 규정 사생수칙 위반자
11. 기 타: 기숙사비는 연간 180,000원 (식비제외)이며, 외문사항은 학생기숙사 상담실로 문의바람 (☎ 54-2255)

학 생 기 숙 사 사 감 장

社説

대학 발전을 위하여

우리는 지난 몇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뒤흔드는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분노와 더불어 자조의 기분을 맛보았다. 어느 한 사건이 마무리 되는가 하면 새로운 사건이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사건이 끊이지 않아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냈다. 이러한 현실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현상으로 도덕성 실종과 인간성의 상실을 꼽는데 동감을 표시했다. 동시에 도덕성 및 인간성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무너지고 말것이라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고려대학이 범국민적 도덕재무장운동으로 『바른교육, 큰 사람 만들기』 위한 교육선언을 내놓으며 교육혁신의 첫단추를 놓았다. 그 실천 의지의 하나로 우리의 전통 수신 교과서였던 명심보감을 현대사회에 맞게 개편한 신원 명심보감 강좌를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교직원들에게 효행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있다고도 한다. 며칠 전에는 국가가 대정부 질문에서 도덕성회복과 인간성회복운동을 위한 대국민강령을 선포해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적 변화의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 대학을 돌아 본다.

요즈음 우리 대학의 모습은 외형상으로 평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뭔가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뒷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대학구성원들(교수, 직원, 학생)은 자기 중심적으로 따로 행동하고, 뒷사람의 눈치에 의존하는 등 새로운 기풍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누구하나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는 것 같지도 않다. 다만 한동안 학교운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는지 조용하기만 하다. 흐름이 정제되어 있다. 불평이 없으니 모든 일이 잘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바로 우리 내부에도 언제부터인가 복지부동의 실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정제감으로 인한 정신적 위기감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학이라는 집단의 저변에 무력감이 짙게 깔려있음을 의미한다. 대학 구성원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릴 때는 아직도 무엇인가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는다. 불평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이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대학 구성원들이 무력해진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고려대학의 선구자적 혁신운동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 대학도 이러한 범국민적 운동에 적극적 동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행정적 처리과정에서 각 직급에 따른 자율적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상급직에서의 지나친 관심이나 간섭이 바로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다. 다음으로 상하위 직급들이 함께 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성 회복은 인간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무겁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해 마음을 꺼내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러면 움직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성과급별 연구비는 교수들의 연구실적에 따라 엄정하게 차등을 두어 지급 되었으면 한다.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적 경쟁력이 강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痛大漫評



순간선택이 1년을 좌우한다

등교길 배부되는 학생회 홍보물 그냥 버려져

학우들 '내일 아니다' 외면받고 관심가져야

누구나 한번쯤은 등교길에 받게 되는 홍보용 책자나 유인물, 모든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쥐어 지게 하는 모습들.

이들이 고생하면서 만들고 일찍부터 나와서 배포하는 그들이 정성은 정말로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인물들이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혀 버린다.

읽히지지도 않고 그대로 버려지는 유인물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대로 버려버리는 학생들도 문제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독같은 방법으로 나가는 학생들도 문제라고 본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바로 쓰레기통행이나, 새로운 방법의 모색이라는 것이 정말로 힘들줄 안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신들의 생각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해서만은 안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도 '나와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라고 하며 외면해

버릴 것이 아니다. 한번쯤은 읽어보고 생각해 보는 여유가 있어야 하겠다.

지금 학교는 한참 선거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한번쯤은 혹시나 하는 호기심으로 관심을 가져 보자.

(김희선 수확3)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 3매내외, FAX : 56-2204)

학생회 선거공약 관심가져

투표권 신중히 행사하자

11월 우리 대학 곳곳에선 학생회 선거 바람이 한창이다.

교문을 들어서다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아침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온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외치는 소리들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하다. 과연 그들이 내뱉은 출사표를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언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지...

어떤 후보들이 회장·부회장에 당선이 되고 난 후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 못 한다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선거 당시에는 아무런 생각과 관심도 없이 그냥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언제나 이런 시행착오는 있어왔다. 제주대학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학생회의 공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자.

(허문정 중문1)

‘오늘의 신문’ 벽보
왜 ‘한겨레 신문’ 만인가

각 단대마다 자판기나 입구 주변에는 “오늘의 신문”이라고 신문이 조각조각 내려져서 4절지 크기의 종이에 붙여져 있다.

때로는 조각난 기사마다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선이 그어져 이러한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바빠서 신문을 보지 못했을 경우 그날의 사건·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익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신문의 전체면을 붙인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발췌해 오려붙이고 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만드는 측이 관심사에 따라 그 내용이 좌우되며, 이로 인해 이것을 보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신문의 종류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여러 신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가지 신문 소위 진보신문이라 일컬어지는 ‘한겨레신문’만을 게재하고 있다. 모든 단대가 그러한데 그러나 보다 제대된 정보보 알려주려 한다면 다른 신문들이 별로 맘에 들지 않을지라도 다른 신문의 내용들도 보여줌으로써 보다 바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신문’은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일종의 벽보는 없는 만 못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김효경 사교3)

‘학생의 날’ 어디로 갔나

정치적 쟁점 매몰...정작 ‘우리날’ 못 챙겨

오늘은 ‘학생의 날’이다. 전공수업중에 교수님께서 그 유래에 대해 설명해 주신게 계기가 되어 있고 있던 그 의미를 상기해 보게 되었다.

일제시대 광주학생운동을 기리기 위한 날로 제정되었던 것이 정치사에 휘말려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그 직접적인 취지는 다들 모르지만 좀더 내면에 흐르는 그 용기와 정신을 되새겨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엔 민감하면서 정작 우리가 주체가 되어 기념해야 할 ‘오늘’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심을 못잡아 흔들리는 ‘대학’의 현실상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줄 안다. 기성세대 못지않게 학생 스스로도 ‘오늘’을 계기로 자신의 대학인으로서의 자세를 상

기해 볼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한편 이와 맞물려 생각나는 기사가 있다. 동국대에서 일어난 학생의 교수 구타사건, 언론에서는 늘 그레왔듯이 반윤리적인 학생들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탄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물론 그 현상만을 갖고 본다면 그 비윤리적인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학생의 자질만을 탓하면서 왜 기성세대 스스로의 ‘자책’같은 것은 없는 것인가. 오직 ‘자괴’만을 할 뿐이다. ‘존경’하는 마음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가치관의 혼돈을 제쳐가는 이방의 젊은이들을 이끌어 가야 할 임무를 가진 학생들의 자기반성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서로를 감싸고 믿음으로 이루어져 할 사제자간이 너무 벌어져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김민정 국문 3)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

보도블럭등 복구예정

-시설과 답변-

본지 11월2일자(513호) ‘제대신문을 읽고’를 통해 관경경영학과 이난희학우가 지적했던 가로등·보도블럭등에 대해 관계당국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먼저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여 학우들이 걸터다니는 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 시설과 담당자는 “지금 놓여진 보도블럭은 우리대학이 설립될 당시 설치된 것이어서 아주 노후된 상태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나 이번 94년도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내년 예산안 계획시에는 포함시켜 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가로등이 차도쪽으로 향해 있어 야간통행시 인도로 걷기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쪽과 차도쪽 등 양쪽을 향해있는 가로등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쪽(차도쪽)의 것만 켜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도 쪽으로 켜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것 같은데 야간 당직시에 학내 가로등실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연후에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임기자)

제대신문을 읽고

반증제시도 없이 조작수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없다

‘새오름 조직’ 사건관련 총합입장을 보고

지난 10월24일 제주대에서—우리 학교에서—소위 ‘주사파’라는 사람들이 검거되었다고 지방방송과 전국방송, 신문에 보도되었다.

또한 그후 자대 공대 학생회관 등등의 로비나 게시판에 밀실수사 국보법 철폐와 구속학생의 신속한 석방을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여졌다.

11월2일자 제대신문에도 관련기사 실렸다. 그런데 단지 어떤 경위로 그들(구속학우)은 주체사상을 연구하게 됐는지 그것이 학습인지 아니면 추종해서인지 그들이 소강했던 책들이 불온서였는지도 아무 얘기가 없다. 그냥 국보법은 북·미합의서가 채택되어 한반도 평화정착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10월24일 사건은 일어났지만 뒤처진 느낌이 든다. 대서특필하기엔.

어쨌든 그들의 어떤 학우들이고 어떤 걸 하길 좋아했는지에 대한

“필요한 도서 신청을”

-도서관 답변-

본지 11월2일자(513호) ‘독자의 소리’에 실린 김민정(국문3)학우의 도서관관계 투고내용에 대해 관계당국의 답변을 들어보았다.

도서관에 비치된 각종 잡지 선정기준에 대해 김건일 열람과장은 “기준에 선정된 각종잡지(국내정간물 84종, 신문18종)를 토대로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잡지가 있으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구독정기간행물 목록을 확정·선정하여 비치하고 있다”면서 “희망잡지가 있을 때에는 도서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서신청함에 넣거나 직접 도서관담당자에게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간행물실 오성종 사서주사는 “교양·전공 및 학술잡지 선정은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로 결정된다”며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잡지는 구독을 지양하여 집적인 함상을 피하는 가운데 점차 구독잡지수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학우가 지적한 여성잡지의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간행물실에 『Feel』 『여성동아』 『여성생활』 『여성중앙』 등 4종이 비치돼 있다”면서 “도서함에 제대로 책이 꽂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이 책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정용복기자)

공동채용회사

POSCO.....철강생산
POSEC.....엔지니어링·건설
POSCON.....공장자동화
POSDATA.....SI,OA
POSCOCHAM.....정밀화학
POSCOHLULS.....반도체
POSTEEL.....철강유통
POSTRADE.....종합무역

한국을 이끌어온 기업
세계를 이끌어갈 기업

POSCO의 미래경영을 맡아 주십시오

이시대 최고의 인재가 모여 세계와 겨루는 기업, 철강산업과 함께 건설·엔지니어링,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세계일류 기업경영을 창조하고 있는 기업 포스코— 큰 꿈을 지닌 인재를 포스코의 큰 세계로 초대합니다.

대졸신입사원모집

1. 모집분야 및 자격

모	집	분	인원	응	시	자	격
기술계	기계, 전기, 전자, 금속, 화공, IE, 토목, 건축, 전산		000명	●정규 4년제 대학(원) 해당 또는 관련 학과 학사·석사 학위취득한 분 및 '95. 2월 학위취득 예정인 분			
사무계	경영, 경제, 무역, 법학, 행정			●석사는 '67년 1월 1일 이후, 석사는 '6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분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받은 분			
				●해외여행에 걸쳐서 유가 없는 분			

※ 인문사회계열 및 어문계열은 모집분야중 1개전공을 택임하여 응시

2. 전형방법

●1차: 필기시험(영어, 상식)
—일시: '94. 12. 4(일) 오전 9시
—장소: 홍익대학교 및 홍익여중고(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2차: 면접, 신체검사(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3. 서류제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회사소정양식) 1부

지	원	서	교	부	처	지	원	서	접	수
●각 대학 학생처 또는 취업보도실						●기				
●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서울시청 직속 소재)						●접수방법: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공동채용 각사 인사과						●접 수 처: (100-191)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월빌딩 10층 인사관리부				

4. 기타사항

●1차전형은 그룹공동 전형하며
2차전형은 입사지원한 각사별 별도전형에 의거 합격결정함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 제출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함
●기타 의문사항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문의처: 02-7584-431~3)

포스코그룹인력관리위원회

□ 국제화시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

지방을 국제화의 거점으로
연방적 성격의 실질적 자치 필요고 충 석
행정학과 교수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과 일본의 국정개혁의 전략

국제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국제화란 전통적 의미에서의 국경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경제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화는 국가간 자본과 상품의 이동, 정보와 지식의 이동이 보다 심화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의 양상이 국내에서의 이동과 국제간의 이동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는 '국민경제'라는 개념보다 '지구적' 지방화(glocalization)란 개념이 매우 중요해진다.

둘째, 국제화는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전제적으로 통용되는 준칙이나 제도를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의 WTO체제에서는 더이상 GATT체제에서 존재했던 국가간의 프레임업도 현저해 없어진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19세기 말의 국제화는 남의 것을 배워 수용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국제화는 우리가 외국에 나가살면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살아야 한다.

셋째,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국력을 결정하는 것은 과거처럼 국방력이 아니라 경제력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경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간의 경쟁이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지면서 조용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밀하고 총체적인 국가발전전략을 요구한다.

먼저 경제, 산업 등의 교역부문이 세계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기업의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이나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도 기업의 이러한 자기혁신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치와 행정, 법과 제도, 문화와 의식부문 등의 비교역부문도 자기개혁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일본에서조차도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들 나라의 정부가 비교역부문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국정개혁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행정의 비능률과 불공정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행정운영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기업가의 혁신정신이 작동할 수 있는방향(기업형 정부)으로 행정조직의 강화와 운영시스템, 내부유인체계, 그리고 조직문화 개혁을 꾀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업부문이나 금융부문과 같은 민간부문(private sector)에 활력을 주입시키고 동시에 외국부문의 경쟁성 불필요한 부문을 줄여주기 위하여 각종의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자국기업의 국내의 활동에도 유리하지만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도 수월해진다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운영은 자율화, 분권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 내지 지방자율의 강화가 매우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민중들은 완전히 깨어났기 때문에 과거처럼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대는 갔다. 정부운영에 있어서 권력의 집중은 경영의 효율성은 물론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국제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제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오늘날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정책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는가.

첫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요청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와 관련시켜서만 이야기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을 넘어서 지방이 국제화의 거점지역으로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 국제경쟁력 없는 중앙정부만으로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화의 시대정신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이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주체적으로 반야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와같이 '지방경제의 세계화'와 '세계경제의 지방화'가 병행하면서 진행될 때만이 지방의 국제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짜는 일과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의 건설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제주도의 경우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의 해외시장개척과 관광산업의 세계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볼 때 장소관측(place marketing)적인 지역개발전략은 합당한 논리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Hegel의 말처럼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 경구가 오늘날 개발이나 제존이나를 놓고 내연하고 있는 제주도개발에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말하는 차원의 지방화정책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연방제적 성격이 가미될 정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 이렇지 않고서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국제화 시대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 발전 잠재력도 결국은 허물어져 버릴 것이다. 현재와 같은 모든 것을 중앙으로 뺏아들이는 이른바 중앙중심주의(the vortex of centralism)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지난번에 개정한 지방자치법은 오히려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그 속에 담고 있다. 이를 간단히 일괄하면 다음과 같다. ①최형법정주의에 의해 모든 것이 중앙으로 뺏아들이는 이른바 중앙중심주의의 폐해가 차단되었다. ②지방자치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③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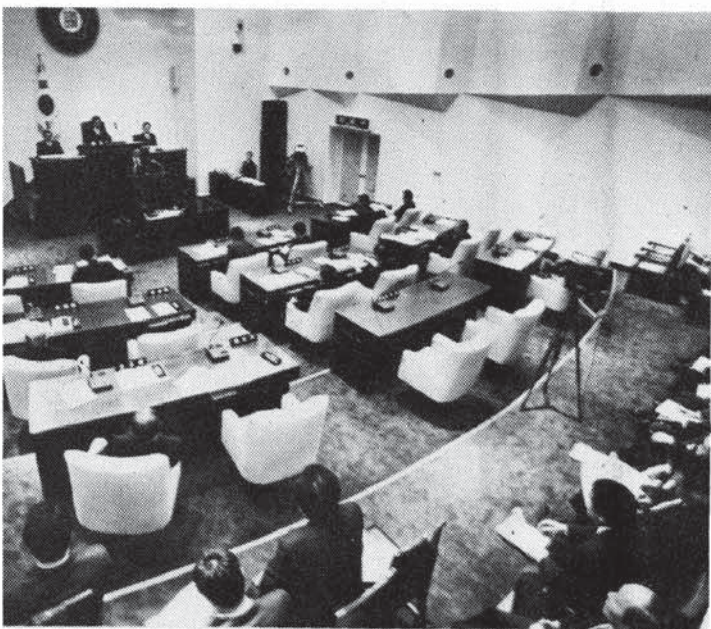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사진: 도의회 본회의 모습)

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넷째, 자치단체간 재정 불균형 시정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93년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전체의 32%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 불균형 시정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조정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도 지방세도 아닌 공동세(共同稅)를 신설하거나 독일의 역교부세같은 제도 등을 도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재정형평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나 지방의 개발자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행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⑤한시적인 것이지만 副자치단체장의 자격기준을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경영과 길을 막았다. 즉 단체장이 원하는 기업인이나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었다. ⑥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⑦읍·면·동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것도 자치정에서 어긋난다. 따라서 이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의 지방자치법은 멀리 않은 장래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그 속에는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에 대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이제 지방의 경제개발, 관광개발, 문화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행정을 '기업가형(企業家型)'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경쟁 및 서비스개념(고객 만족주의)의 質위주의 경영, 공무원의 동기유발 자극 등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도 도입해야 사업주체로서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적인 지방행정전반에 대한 조직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관형성단계에 있는 '제주교역'이나 '제주개발공사' 등의 경우 잘만 운영된다면 그것이 '기업가형 지방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강연초록

가칭 '(주)제주무역'을 말한다

제주농산물 판로등 개척할
전문업체로 육성해야

무역학과 교수

UR수입개방과 WTO체제 출범 이후의 제주도에서 새로운 무역기구를 창설, 운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가칭 '제주무역'의 설립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8월9일에 착수해서 한달간의 작업 끝에 설립 타당성을 연구했다.

우선 제주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샘플링한 표본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무역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가 86%, "무역회사가 설립되면 당산의 제품을 제주무역을 통해서 팔겠느냐?"는 질문에 90%가 "팔겠다"고 대답했다.

도내 무역기구는 56개다. 그런데 이중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무역업체는 7개 정도 된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제대로 활동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7개 업체에 물었다. "무역회사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부분은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기존의 무역회사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무역을 해야지 왜 새로운 업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업체를 위태롭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도내 무역업체는 자본금이 2, 3천만원에다가 직원도 많아야 1~2명이다. 보통 20~30년 되는 영업기간에 비해 수출 실적도 미미한 실정이다. 무역업체의 60%는 반대의견을 나타냈지만 어떤 업자는 찬성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업체의 경영진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물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제주무역이 생긴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시설과 자료를 기꺼이 양도하겠다고까지 밝히는 사람도 있었다.

제주무역이 설립되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UR수입개방이 실시되면서 정부는 하계에, 농민단체에 상당한 연구지원금을 쏟아부었다고. 감귤대책, 농산물 수입대책, 방제정조정제도도 대폭적으로 개선되어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간 중앙의 통제수단이었던 보조금·양여금보다는 교부금을 늘려야 한다.

다섯째,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국제화시대, 자치시대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매년 6월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선출되어야 한다. 앞으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3M(mind)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①정책마인드 ②정치마인드 ③경영마인드를 말한다.

이 글은 지난 10월30일 로베로호텔에서 제주경실련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실무대학'에서 고충석교수가 발표한 글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현재는 정보와 사회라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결과이다. 오늘날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병용하여 사무실의 사무자동화(OA), 생산공장의 공장자동화(FA), 가정에서의 가정자동화(HA), 경영에서의 이용(MIS) 및 우주개발에 이용에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와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CIM, ISDN등의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처음 컴퓨터가 설치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후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의 설치와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또한 C언어는 고급언어이면서 기계어(Assembler)에 가까운 언어의 기능을 갖고 있어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동화 설비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런 몇가지 측면만 살펴보면

서 일본에 수출되는 것들은 높은 값에 팔리고 있다. 왜지고기도 훨씬 가격을 잘 받는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는 100% 냉동상태로 수입되고, 대만으로부터 냉동이 각각 50%씩인데 반해, 제주의 경우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므로 100% 냉동이라서 맛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유리한 것이다. 그런데 613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수출하는 농수산물 비중은 0.04%다.

가까이에 거대한 농산물시장을 놔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밀감을 열심히 해봐도 모두 5.6천억원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일본 수출액 중에서 1%만 차지해도 밀감농사에서의 소득을 앞지르는 것이다. 제주도는 일본과 가까운 편 아니라 청정지역으로 알려져서 제주도산물이 인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일본시장개척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구체적인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 밀감은 지금 농협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담당직원은 무역을 전혀 모른다. 캐나다의 수입업자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걸어 농협측에서는 보내기만 하는 형편이다. 가격결정, 품질관점 등은 그쪽에서 한다. 계약서도 없이 가격도 제대로 남기는 정도이며, 그나마 제대로 쳐주지도 않는다. 지금 1천톤 수출하면 3억원 손해가 생기고 있다. 전문무역업자를 우리에 양성해서 그들이 직접 캐나바로, 미국으로 뛰게 해야 한다.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채널이 있어야 한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다. 제주도의 무역업자는 주로 일본과 거래한다. 일본의 소매업자들과 거래하고 있는데 20~30년 동안 경로를 바꿀 생각을 안한다. 결국 그쪽 중간도매상이 이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그쪽에서 불러주지 않으면 팔 수 없는 형편이다. 매수인 위주의 시장인 것이다. 애학실력과 무역에 관한 지식을 갖추서 우리가 뛰어야 한다.

임산물인 경우에도 표고버섯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다. 그런데 버섯을 키울 나무를 구할 수 없어 기르지 못하는 형편인 가운데 중국산·대만산이 밀려오고 있어서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제주의 맑은 공기, 기후 때문에 제주의 표고버섯은 높은 값에 팔리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도 제주무역설립은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다. 제주무역은 수출 뿐 아니라 수입도 해야 한다. 가장 큰 것이 오렌지다. UR협상하면서 농산물시장이 개방돼서 연도별로 관세를 부과시켜서 수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수입업자에 따라서 관세도 차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업자가 수입하는 것은 50%, 그렇지 않은 업자가 수입하는 것은 80, 90%이다. (2천년도에 가면 어느 업자건 50%지만)지금까지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오렌지를 수입했다 팔았지만 수입업자가 되면서 수입권을 제주도에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수입은 신설된 제주무역이 하고 판매는 감협에서 하도록 하는 원칙 아래 수입권을 도(道)로 넘겼다. 제주무역은 오렌지 수입에 있어 독점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수입대행료를 받을 수도 있다. 제주무역의 경우 모든 수입절차를 책임지고 처리하게 될 예정이므로 수입대행료 수입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요즘 종합상사의 경우 직수입대행료는 3~4%이다. 조사결과 제주무역은 10년동안 4~5%받기로 했다. 관세율이 부과되는 데에 따라서 조절해가기도 하고 2천년도에 가면 4%받기로 했다.

손익계산서도 산출해봤는데, 정상적으로 활동했을 경우 95년도에는 감귤수입 대행료와 수출이익에서(제주도 전체 수출의 10%를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약 4백50만불 규모가 될 것이다) 시장개척비를 빼아하니가 2년정도는 적자다 예상된다. 2년간은 손해보고 3년부터는 이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소한 감귤만큼은 매일원가와 매출원가가 같아야 한다.)

제주무역이 설립될 경우 자본금은 3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무역은 가장 자본금이 적지 않은 사업이다. 사실 30억도 필요하지 않다.

간접적인 형태로 도에서 10억을 출자하고 있다. 제주도의 무역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제주도민들은 무역에 대해서 자신도 없고 관심도 갖고 있지 않다. 무역은 필요하고 능력은 없고 그래서 도에서 나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무역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안이 제안된 것이다. 앞으로 제주경제 현실이 처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주무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리:진명희 기자)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FORTRAN 77

金壯亨
崔然成 共著
崔鍾秀

FORTRAN은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아직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 중의 하나이다. FORTRAN을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소프트웨어가 이미 그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쉽사리 다른 언어로 옮겨가기 어렵기 때문이며, FORTRAN 또는 COBOL등의

초창기언어는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다고 격하시키는 프로그램어들도 있다. 그러나 FORTRAN은 명료한 구조, 고속의 컴파일러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등의 많은 장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컴퓨터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언어이다.

光文閣/9,000원

TEX입문

김철수
박기현 共著

이 책이 여러면에서 불완전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TEX에 관한 우리글로 된 책이 별로 많지 않은 까닭에, 저자가 TEX을 처음 다뤘을 때 느꼈던 불편함을 똑같이 느끼는 이들에게 미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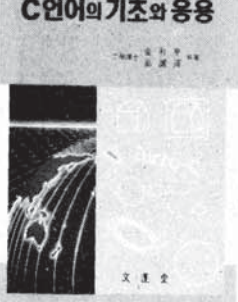
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빈

약한 내용이지만 시의성에 의의

를 두고 세상에 내어 놓기로 하였습니다.

京文社/12,000원

C언어의 기초와 응용

金壯亨
高誠澤 共著

현재는 정보와 사회라고 한다. 이것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결과이다. 오늘날 컴퓨터는 컴퓨터 자체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와 병용하여 사무실의 사무자동화(OA), 생산공장의 공장자동화(FA), 가정에서의 가정자동화(HA), 경영에서의 이용(MIS) 및 우주개발에 이용에까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와 사회의 주역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CIM, ISDN등의 새로운 용어를 탄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처음 컴퓨터가 설치되어 일반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후로 오늘에 이르러서는 컴퓨터의 설치와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또한 C언어는 고급언어이면서 기계어(Assembler)에 가까운 언어의 기능을 갖고 있어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자동화 설비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응용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11월4일 지역조사회의회(위원장 지은숙 사학4) 주최로 백두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초청강연 '가칭(주)제주무역'을 말한다(강사 고충석 무역학과 교수)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文運堂/10,000원

Fogler

화학반응공학

이민규 송승구
주창식 박인수 共역

컴퓨터공학의 변화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이크로전자공학 및 생물공학과 같은 많은 새로운 공학들이 화학공학의 본류에 포함되고 있다. 이 분야의 내용이 제2

□ 학생회중앙자치기구 임후보자 지상소견발표

학우대중의 참여속에 학원 자주 실현하자

총 학생회



정 송창윤

개척하는 진보, 비상하는 젊음, 도전하는 미래!!!
참여와 자치의 학원공동체 건설
진보총합이 8천아라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대학교도 변했고, 학생들도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도 80년대의 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입니다. 물론 우리학교에서도 학생회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생회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생회의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주도하기는 커녕 따라잡지조차 못하고 관성의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회, 학우들을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학생회의 방지에 학우들이 일반적으로 따라오기만을 기다렸던 지금까지의 활동들이 바로 학생회의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학생회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과거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간부의 혁신을 외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회는 지금까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피눈물나는 자기반성과 함께 학우들을 진정한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우려는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총합은 학생회와 학우들의 분리로 나타나고 있는 학생회의 위기를 참여와 자치로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보총합학생회는 이를 위해 학우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 영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자치활동의 내용 자체가 학생회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처럼 학우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국가나 언론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민중적인 관점에서 현실화시켜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보총합은 '총학생회가 모든 것을 지도해야 하고,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는 자기 오만을 벗어던지고 학우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과학생회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과학생회에 대한 '지도'를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총학생회의 과도한 역할 설정은 오히려 과학생회와 무관한 정치적 내용만을 강요함으로써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을 증폭시켜 온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학생회의 강화를 위해 총학생회가 해야 할 일은 정치적 내용의 지도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생회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학생회는 과학생회의 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독자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과학생회의 강화, 학우들과 학생회의 유기적인 결합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보총합은 학생회의 활동이 근시안적인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물리적 투쟁중심의 활동에서 연구중심의 활동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 본연의 임무인 학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연구중심의 활동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본연의 임무인 학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연구중심의 활동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특히 대학본연의 임무인 학문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연구중심의 활동으로 바뀌어나가겠습니다.

진보총합은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분기별 공청회를 실시하여 철저히 공개함으로써 학우들의 일상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학생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철저히 비판하면서 8천아라의 이름을 빌어 얻어진 모든 수익사업에 대한 비용을 공개하여 일상속에서부터 학우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화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변화를 주도해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문구가 문득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총합학생회는 바로 여러분과 같이 10년을 좌우할 선택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 첫걸음을 '긴호흡 힘찬 걸음'으로 내딛겠습니다.



정 양현준

안녕하십니까. 95년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청년사랑 총학생회 정:양현준(법4) 부:송중철(물리2)입니다. 찬바람이 스산히 부는 늦가을의 정취에 맞춰 이렇게 지면을 통해 8천아라인 여러분들께 반갑다는 인사말 먼저 드립니다. 흔히들 요즘 모든 것에 대한 변화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 모든것은 정제되어 있기보다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학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학생회도 시기적 조건, 학우들의 정서에 기반을 둔 내용으로 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변화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이전의 학생회의 역사적 토대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려는 몸부림을 해 왔었습니다. 6년의 자주적 학생회 역사 속에서 얻어낸 성과 즉, 사회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한 점,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만들려는 자세로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자주적 학생회로의 지향을 설정한 점 등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요즘에 들어서 학우들의 정서와 제반적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즉 학우들의 처지와 조건에 기반을 두지 못한 학생회의 모습, 상충 간부중심의 논의와 이를 통해 나타나는 사업방법 등의 문제점 등을 우리는 큰 오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의미는 바로 전자인 성과점들을 받아내고 후자의 오류들을 과감히 극복시켜 나가는 의미인 바로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변화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사랑 총학생회는 바로 이런 계승과 혁신의 관점에서 다시 태어나 변화를 추구하는 자주적 총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크게 4가지 형태의 정책을 8천아라인 여러분들께 제시를 합니다.

1) 실질적 의견수렴의 통로 제도적 안착
학우들의 의사를 전문적으로 수렴할 여려운 수렴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여론조사단을 과당 1명정도 주제를 마련하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은지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설문지나 기타의 형태를 통해 15일에 한번씩 단체별로 모임을 가져 총학부서협 회의 모임을 통해 분석하여 많이 제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입안,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여론이 수렴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하고 역량이 안되면 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

히 해명하고 결정된 사업도 공개하여 학우들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II) 학원 자주화 사업.
1) 등록금 대책위 구성을 통한 학원 자주화사업의 대중화 전개.
①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과, 단대, 예결산안의 구체적인 공개.
② 생활복지 기금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확보.
③ 교육재정 5%확보를 위해 학교당국의 동향.
④ 투표를 통한 등록금의 결정.
⑤ 설문조사를 통한 1인1요구안 만들기
2) 우리 대학의 미래를 담은 제주대학교의 상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발전협의회의 학생실무주제 마련.
3) 소비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대학생 활동조합 토대마련.
4) 교양과목의 확대 및 강의평가제 시범적 시행.
5) 과학생회장 장학금 일괄지급.
기타로 중앙도서관까지의 시내좌석버스 운행, 장애인용 계단과 손잡이 설치, 이동조립식 야외무대설치 등을 하려고 합니다.

III) 단대전문성 강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단대전문성강화특별소위원회(가칭)를 건설하여 서로 관련학과, 관련단대와 그리고 학술단체의 연계를 통한 전문내용의 확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V) 통일사업
95년 조국통일 원년을 바라보며 북·미회담 타결이후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한층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주지역에서도 통일의 열기를 분출시켜 낼 때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주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통일사업을 기획하여 7, 8월에만 하는 한시적 통일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청년사랑 총학생회는 학우개개인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우리조국의 문제까지 폭넓게 고민을 하는 항상 학우들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서는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정서에 기반한 95년을 준비하는 청년사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송중철

이 해명하고 결정된 사업도 공개하여 학우들과 함께 진행할 것입니다.

II) 학원 자주화 사업.
1) 등록금 대책위 구성을 통한 학원 자주화사업의 대중화 전개.
① 아직까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과, 단대, 예결산안의 구체적인 공개.
② 생활복지 기금 및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확보.
③ 교육재정 5%확보를 위해 학교당국의 동향.
④ 투표를 통한 등록금의 결정.
⑤ 설문조사를 통한 1인1요구안 만들기
2) 우리 대학의 미래를 담은 제주대학교의 상 마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발전협의회의 학생실무주제 마련.
3) 소비조합 운영 개선을 위한 대학생 활동조합 토대마련.
4) 교양과목의 확대 및 강의평가제 시범적 시행.
5) 과학생회장 장학금 일괄지급.
기타로 중앙도서관까지의 시내좌석버스 운행, 장애인용 계단과 손잡이 설치, 이동조립식 야외무대설치 등을 하려고 합니다.

III) 단대전문성 강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단대전문성강화특별소위원회(가칭)를 건설하여 서로 관련학과, 관련단대와 그리고 학술단체의 연계를 통한 전문내용의 확보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IV) 통일사업
95년 조국통일 원년을 바라보며 북·미회담 타결이후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한층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제주지역에서도 통일의 열기를 분출시켜 낼 때입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적 연구주제를 마련하고 다양한 통일사업을 기획하여 7, 8월에만 하는 한시적 통일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는 통일운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청년사랑 총학생회는 학우개개인의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하여 우리조국의 문제까지 폭넓게 고민을 하는 항상 학우들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서는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학우들의 정서에 기반한 95년을 준비하는 청년사랑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과를 이끌고 나가는 분과장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실에 분과장 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분과장 주제의 역할은 분과장을 분과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분과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원칙과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며 활동에 대한 낙관적 신심을 불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장 주제의 도움을 받아가며 안정적인 분과회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생활문화운동'
동아리는 어느 집단보다도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고,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통해 8천 아라학우들의 문화적 소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때문에 동아리가 대학에 올바른 민족자주문화를 건설하는데 그 책임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아리인이 올바른 생활문화로 조성에 모범으로 서너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생활문화운동을 고민할 수 있는 생활문화부를 두고, 그 아래 소모임을 만들어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아리인 손으로 만들어 주인으로 서 나가는 학원 자주화 투쟁'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으로 대학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대



◇교문에서 인사하고 있는 총학생회 후보자 모습. (좌)진보 (우)청년사랑



총여학생회



정 이봉실

가을에는 저리높은 하늘보며 그따게 살겠노마 다짐하고 싶어집니다. 95년에는 4천아라여학우들의 고민의 결을 보듬어 준은 물론 이 땅의 여성이기에 감내해야 하는 아픔들을 끌어안으려 합니다. 바로 새날열기 총여학생회가 논가에 해맑은 웃음담아 세상을 향해 불꽃을 트겠습니다.

1. 아랫발 여학우들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총여학생회에는 의결기구인 각 단대여학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회가 각 과여학생회(부)와 통일된 내용이 건설되었습니다. 여연소의 교육·교양 내용의 풍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연소에서 토론된 내용을 설문지로 조사, 공개화 하겠습니다.

2. 더욱 친근한 학우들의 걸잡이가 되겠습니다. 올해 여성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여성문제연구소(이하 여·연·소)모임이 건설되었습니다. 여연소의 교육·교양 내용의 풍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연소에서 토론된 내용을 설문지로 조사, 공개화 하겠습니다.

3. 4천아라여학우들의 뜻 모아 주인으로 서겠습니다.

제주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대생들의 취업문제는 육지 타 대학과는 매

우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총여학생회는 여대생 취업에 대한 올바른 고민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여학우들의 휴식공간인 여학생휴게실의 분위기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총여학생회내에 열린공간을 마련, 여학생휴게실의 단점을 보완하겠습니다.

4. 보다 많은 아라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여 학우들의 정서와 내용에 맞는 일상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총여학생회의 농촌탁아활동, 여성학교 등을 이전 전 재대학우들에게 대중화 시켜낼 것입니다.

5. 이젠 '우리'로 서겠습니다. 제주지역내 제주전문대, 관광전문대의 학간연대, 그리고 제주여성단체와의(여민회, 여농)연계 속에서 지역내 여성운동의 강화와 확산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투쟁, 자주교류투쟁을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전여대협)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봉건적 억압과 민족적 억압의 이중적 고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새날열기 총여학생회는 이 아픔을 함께하며 8천의 반쪽으로서 힘있게 서 있을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올바른 문화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동아리 활동을 동아리 개별적·고립적 활동으로만 바라보고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는데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아리 활동 공간에 올바른 이용정형을 마련하여 모범을 창출하고 동아리인들도 학원의 주인임을 알려내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에는 인북부를 두어 각 지역별(3·4층, 지하, 스탠드)주제를 마련하고 연석회의를 이루어내면서 동아리인들의 생활복지개선사업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동아리인이 준비하고 꾸러가는 내실 있는 일상사업' 서로가 어우러지는 '전치마당'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분과의 운영을 바탕으로 동아리인들의 보다 많은 요구를 수렴하고 작지만 가슴 뿌듯이 웃을 수 있고 동아리와 동연이 전해질 수 있는 일상사업을 이루어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치기구 선거일정표

기구명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총학생회	10월26일~11월24일	24일
대의원회	4일~23일	23일
총여학생회	2일~24일	24일
동아리연합회	10월29일~11월15일	15일
각단과대학	10월29일~11월26일	9일~16일

대의원회



정 강중우

창밖의 날씨는 봄 날의 한가로운을 연상시키는 듯 한가롭기만 합니다. 저희 담을 대의원회에서 이런 가을 날씨의 청명함과 온화함으로 8천 학우들과 2백대의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대학 사회에서의 개별적, 개인적인 생활 형태속에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의원들의 관심과 질타 속에서 이제 대의원회는 새롭게 그 위상을 정립해야 할 시기이며 학교의 발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점 부끄러움없는 대의원들이 되어 할 시기입니다.

이에 95년 담을 대의원회는 이런 학우들의 가슴속에 그 뿌리를 내리고자 95년을 다음과 같이 힘차게 열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의 제 역할 찾기와 그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회의의 안건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로서 각 단과대학 대의원 대표 2인으로 구성됩니다. 상임 위원회는 대의원 총회의 권한과 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논의되어진 안건들과 결과를 각 대의원들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을 대의원회에서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과 그 지위보장을 위해 각 단대의 학년대표자 모임을 주도해 내는등 그 역할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대의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의체제로서의 대의원회가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 학생회의 체계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원래의 대의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담을 대의원회에서는 95년도의

학생회 정책결정과정에 8천아라인의 창의적인 사고와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전문적인 특별위원회의 신설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 복지학원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를 이뤄내겠습니다.

학우들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식당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식사의 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면들까지도 담을 대의원회에서는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우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운동장을 살리기위해 대의원회에서는 학교당국 및 총동창회, 학우들간의 협의속에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학우사랑의 실천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시청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그 곳까지만이라도 빈 차로 내려가는 승용차에 학우들을 태우고 가는 일은 바로 학우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스티커 제작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네째, 4개 대학 대의원 연합체 건설을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는 교육대학교를 제외한 4개 대학에 대의원회가 있는데 이 4개 대학이 서로 연계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더 나아가 제주도의 문제까지도 더불어 고민하고자 4개 대학 연합체를 건설하겠습니다.

'오늘의 변혁만이 내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담을 대의원회에서는 95년도의

동아리연합회



정 송중익

부 홍정미

95년 제11대 한우리 동아리연합회의 정책은 크게 조직, 생활문화운동, 학원 자주화, 일상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동아리의 친근한 벗' 분과장을 강화하여 분과장회의 대중적 공유를... 동아리연합회의 조직체계를 간단히 본다면 동아리-분과-동연으로 이루어지고, 분과를 통해 4천5백 동아리인들의 기본적인 의사수렴과 동연의 도움주기를 관철됩니다. 전에도 분과장회의 노력들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허리케인 분과가 매우 약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동연의 실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동연 정책의 주요 흐름은 분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동아리인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알려내고 분과로 동아리인들의 힘을 모아나가면서 동연과 동아리인들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과를 이끌고 나가는 분과장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실에 분과장 주제를 마련할 것입니다. 분과장 주제의 역할은 분과장을 분과의 책임자로서 올바른 분과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원칙과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며 활동에 대한 낙관적 신심을 불어 넣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과장 주제의 도움을 받아가며 안정적인 분과회의를 이루어 내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가꾸어 가는 생활문화운동'

동아리는 어느 집단보다도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향과 요구가 높고, 자신들의 전문영역을 통해 8천 아라학우들의 문화적 소양 및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때문에 동아리가 대학에 올바른 민족자주문화를 건설하는데 그 책임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들의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공동체 생활에 대한 지향을 높일 수 있도록 동아리인이 올바른 생활문화로 조성에 모범으로 서너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생활문화운동을 고민할 수 있는 생활문화부를 두고, 그 아래 소모임을 만들어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동아리인 손으로 만들어 주인으로 서 나가는 학원 자주화 투쟁'

동아리는 대학문화의 꽃으로 대학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대

시론 사범대의 현황과 과제

교육과정개선·교육대와의 통합등으로 체질강화 절실



양진건
교육학 조교수

최근 점증하고 있는 사범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좀 더 내실있는 성찰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하지 만 급기야 사범대의 존폐여부를 거론할 지경이고 학과 통폐합이 일부 현실화되고 있고 보면 위기의 심각성이 만만치 않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범대의 많은 학생들은 교직에 관한 거의 배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Byers나 Freeman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서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how to teach?)이란 지식을 기르는 형태의 연장이며 본능과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을 사범대 스스로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사범대 교수들의 교과교육에 대한 기피현상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학생들이 사범대에 거는 기대와 동기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임용과는 상관없이 낮게 조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범교육을 마치

고 교직에 나가 보아도 자기 신뢰나 전문적인 권위 및 보상도 별로 보람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범교육 그 자체가 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형성해 주지 못하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나 방법들이 수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과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사범대의 숙명적 화두인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비전문적이고 비학문적인 것으로 치부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사범대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크다. 특히 외대나 사범대 처럼 소위 전문적 직업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 이수과정 동안에 겪는 "공유된 시련"(shared ordeal)이지만 결국은 사범대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포고하고 있는 셈이다. 교직 과목이나 교과교육과목이 너무 어려워 혹은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사범대가 아니라도 혹은 사범대보다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비사범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곁색한 것도 사범대가 자초한 결과이다.

혹자는 교사임용이 원활하게 되면 사범대 문제는 일소된다고 하지만 사범대가 교과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는 한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질 것이다. 만일 임용이 원활해지고 사범대가 변화

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로는 학문적 자질이 낮고 비학구적인 사람들에 의해 교직이 주도될 공산이 커진다는 점이다. 교사임용이 잡되더라도 사범대가 여전히 교직에 대한 도전감이나 흥미를 잃게 하기 때문에 우수학생들은 오히려 사범대 및 교직을 기피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미국의 경우 학문적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교직이 예외적으로 높은 비율로 매력있게 비쳐지고 있으며 교직 유지율도 높은 반면에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력이나 유지율의 측면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Vance와 Schlechty의 보고는 매우 시사적이다.

물론 교사양성과 임용은 하나의 고리이다. 임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냐는 곧 바로 양성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양성과정은 임용에 대한 준비단계이다. 따라서 임용과 무관한 양성, 또는 양성과 무관한 임용이란 존재의의를 갖지 못한다. 교사임용은 빈자리에 사람을 채운다는 인원보충적인 소극적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우수교사 선별을 위한 합리적 임용방식을 통해 양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 임용 제도는 어떤 기록이나 보충도 인정하지 않고 양성기관 간의 비교 우위가 가려질 수 있도록 질적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범대를 사범대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분명 범정부적인 조정이나 지원이

절실한 부분도 있고 대학 스스로의 자구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에 의해서 대학 당국에 의해서 사범대에 대한 재정적 차원의 용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에 의해서 대학 당국에 의해서 사범대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극히 미미하게 현실이다. Pesneau와 Orr가 미국의 37개주 63개 교사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한 결과를 보면 교사교육에 대하여 분명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낮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범대 학생의 1인당 수업에 소용되는 직접 비용의 평균이 대학 전체 학생의 5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는 사범대의 프로그램들이 여타 단과 대학의 프로그램들에 비해 복잡도가 덜 하고 투자의 효과도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근거없는 판단일 뿐이다.

대학의 자구책으로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교육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연장에서 사범대 체질 강화를 서두르고 있는데 특히 교과교육전공 교수공제 등을 통해 정체성 보완에 애를 쓰고 있다. 그런가하면 전국의 사범대 평가를 등급에 따라 임용 고시 가산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과교육 교수 확보율, 교과교육과정, 사도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 교직교육과정, 교육실습, 학습자료 및 도서, 실험 실습, 마이크로 티칭실, 학사내규, 취업률 등의 점검과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당국이나 사범대 혹은 학과단위의 대응 노력을 아랑곳도 전무한 실정이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범대 체질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면 그 가닥이 대략 7가지 정도로 잡히고 있다.

1. 사범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양성체제로의 구조조정 및 역할 분담
2. 사범대 교육과정의 법제화
3. 교과교육과목 학점의 상향조정 및 담당 전공교수 배치의 의무화
4. 교육실습의 획기적 개선과 부속학교 설치의 의무화
5. 교사자격증 발급의 질적 통제
6. 양성과정의 질적 고도화를 유도하는 임용제도의 구안
7. 교사양성기관 및 학과에 대한 평가인정제 실시

이러한 강화 방안은 대체로 교사교육의 전문화, 경쟁화, 개방화라는 원칙에서 짜여지고 있는데 부실한 교사교육체제를 개편(restructuring)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가히 개혁적이다. 현실화 여부는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동안 사범대의 무사안일과 타성에 대해 자정노력과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산적인 관심과 긴장을 요한다. 이유가 어쨌든 사범교육 그 자체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의를 느끼지 못한다면 사범대 스

과학이야기

신물질 창출과 수의학



신물질 창출이라 함은,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질의 합성내지는 기존 물질의 비확인 기전(mechanism)을 찾아내어 의학·농약 및 기타 화학물질로서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다.

80년대까지 신의약, 신농약 등의 신물질창출은 미국, 일본 및 유럽등의 선진 몇개국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수행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으로서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들면 인간에 유용한 신물질이 1개 창출되면 그 물질로 인한 부가가치는 직인 6백명의 연구소가 10년간 투자할 자금을 거두어 들이는 1차적인 효용가치는 물론 인류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이중의 효용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자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더더욱 매력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자를 필두로 대학 및 각기업의 연구소들이 신물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방면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동안 몇개의 신물질이 개발되어 의학·농약에 이바지한 바 있다.

화학자들 또는 생물학자들에 의해 신물질이라고 생각되는 후보물질이 발견 또는 합성되었다고 할때 후보물질을 직접 인간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들 물질에 대해 개발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1차적인 활성 screening을 거쳐 선별하게 된다. 실제로 후보물질은 하루에도 몇개씩 합성이 가능하나 활성을 가진 후보물질의 탄생은 극히 낮은 확률을 나타내고 있다. 즉, 1차 screening과정을 통과해서 2차 screening 후보물질로의 확률은 1-2% 정도도 안된다. 다음으로 1차 screening 과정을 통과한 후보물질에 대해 생체에 미치는 독성영향을 측정하는 2

차screening 과정을 검색하게 된다. 이는 아무리 우수한 효능을 가진 후보물질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 동물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신물질로서의 등록은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60년대에 임신부의 임신 구조억제제로 개발된 thalidomide는 우수한 효능에만 집착하여 개발된 후 인간에게 응용한 결과 20만 이라는 엄청난 수의 기형아가 태어나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차 screening과정은 통상 변이원성 실험 및 급성독성을 이용한 LD₅₀(50%의 동물이 치사하는 용량)를 측정하게 된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가지 실험법이 이용되고 있다. 2차 screening과정을 통과한 후보물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후보물질을 1회 투여한후 LD₅₀값은 물론 동물의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그 물질의 개략적인 독성을 측정함과 동시에 아급성 독성실험의 용량을 설정하게 된다. 아급성 독성실험에서는 후보물질이 영향을 주는 표적장기(target organ)를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여 혈액 생화학, 혈액학, 소변 리조직학적 검사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독성실험의 최장(最長)실험으로 만성 및 발암성 독성실험을 수행하여 생체내 안전 용량 및 발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후보물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생식독성실험(임신 전 및 임신초기 투여시험법), 안전성 시험 등 특수독성 실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물질에 대한 상기 독성 실험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독성실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신물질로서의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FDA, 유럽의 OECD, 일본

의 후생성 및 우리나라의 국립 보건 안전연구원의 지침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물질 창출과 수의학과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의학이 소, 돼지, 말등의 동물의 질병을 진료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학문쯤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동물의 진료를 빼놓고 수의학만을 운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절반정도가 실험동물에 이용한 연구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신물질개발과 관련하여 실험동물을 이용한 안전성 연구(Toxicological Research)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은 안전성 연구가 수의학만을 전공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며 실제로 현재 국내의 모든 수의학과 교과과정에서도 조직학, 병리학, 약리학, 실험동물학 및 독성학 강좌가 전공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이와같이 신물질 창출의 중간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혈액 생화학, 혈액학, 소변 리조직학적 검사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독성실험의 최장(最長)실험으로 만성 및 발암성 독성실험을 수행하여 생체내 안전 용량 및 발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한편 후보물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생식독성실험(임신 전 및 임신초기 투여시험법), 안전성 시험 등 특수독성 실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후보물질에 대한 상기 독성 실험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독성실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신물질로서의 등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미국의 FDA, 유럽의 OECD, 일본

김세훈
수의학과 전임강사

매체비평

초점없는 보도태도

지양하라

-MBC 지방뉴스를 보고

지난 1일 저녁 MBC 지방뉴스에 서부두에 폐선박이 방치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그후 9시뉴스에서는 폐선박을 항구에 버렸다고 보도했다.

과연 방치와 버렸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일까?

전혀 다르다. 얘기인 즉은, 선박회사의 도산으로 용공호를 비롯한 5~6개 선박이 항구에 매어진채 3~4년이 지나갔는데도 처분이 안된다는 얘기였다.

회사가 도산했어도 선주는 있을 것이다.

선주의 의도나 입장은 나오지않고 단지 폐선박은 공해이고 지역

주민의 입을 등장시켜 단지 입·출항시 불편하고 불량 청소년이 거기서 불량행동이나 탈선의 아지트 역할을 한다는 얘기뿐이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처음엔 방치라고 했다가 나중엔 버렸다고 아예 단정해 버린다는 건 더더욱 공적 입장의 방종으로 서 견제되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뉴스... TV뉴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파장은 무엇인가? 일관된 보도 태도가 아쉬웠다.

또한 같은 보도라도 더 자세히 접근 보도했으면 한다.

왜 방치되어 있고 무엇이 고쳐져야 했는지... MBC지방 방송의 일관된 보도태도를 촉구한다.

(이현지 산디3)

‘빠빠 가격인하’ 광고

지나치게 선정적

우연히 스포츠신문을 보다가 광고 하나를 보게되었다.

여자의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있는 그림(?)이었다. 아이가 없었던 것은 그것이 빠빠의 가격인하를 광고하는 것이었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해야할지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해야할지... 광고가 우선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끌어야 한다고 하니 그 점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광고가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스포츠신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들의 눈에 안 띠는 보장이 있겠는가.

요즘 청소년 문제·탈선·비행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한 판에 환경을 좋게 조성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그러도록 부채질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다.

빨리 그 광고를 시정하고,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자각하여 반성하기를 바란다.

(고은경 영어교육과 1)

제주의 미래 환경을 생각하며
푸른 삶 예고하는 지역신문—漢拏日報

지역사회를 올바른 시각으로 이끌어가며
도민들의 소중한 내일을 창조해가는 향토지—한라일보
깨끗한 사회 속에 보다 유쾌하고 진솔한 삶을 위해
독자들의 한결같은 신뢰와 사랑으로
제주의 미래를 약속하는 환경을 생각하며
참된 변화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漢拏日報社

제주시 삼도1동 568-1
Tel. 50-2114 Fax. 52-9790

고시반 환경 열악... 체계적 관리육성책 마련 절실 본부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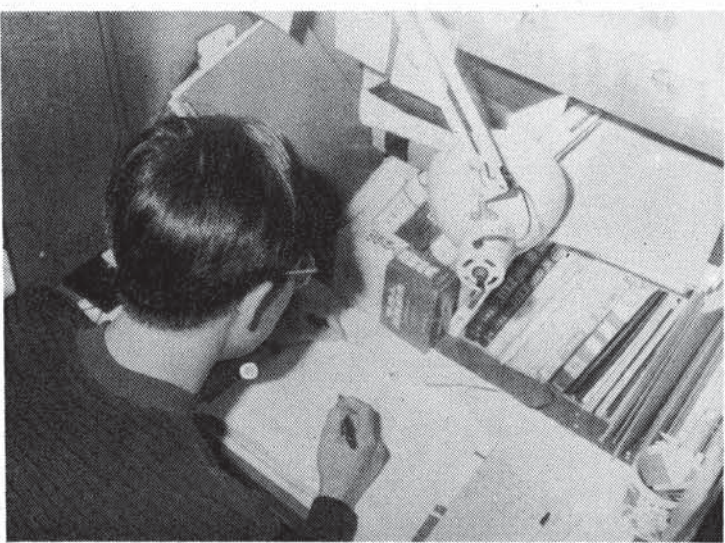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시반 활성화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8년에는 법정대 90년에는 경상대에 고시반이 설치됐는데 5년이상이 지나고 있으나 제대로 육성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육성책 마련이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법정대, 경상대에 설치된 고시반에는 30여명의 학생들이 고시준비를 열을 올리고 있으나 그 시설이나 지원면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학교로부터 지원되는 것으로는 단과대학 특별예산에서 각 고시반에 1백만원 정도씩 배정되는 것이 조작이다. 이 액수로는 고시관련 서적구입, 모의고사실시, 외부강사 초빙 등에 사용하는 데에도 부족해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시설개선 등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정대 고시반 실장인 허영진(행정3)학우는 현재 고시반의 가장 큰 문제로 정보부족과 분위기 조성 안 된 점을 들고 있다. 허실장은 "각종 고시관련 자료를 통하거나 자체적으로 스테디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정보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며 "전임조교를 배치해 정보수집이나 고시반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법정대 고시반 지도교수인 이경원(행정학과)교수는 "장학금 혜택 부여, 시설개선 등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고시반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 "고시반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수용, 전체적인 규모를 늘리면서 분위기



◇고시반에 대한 예산지원이 법정대와 경상대 각 연1백만원씩에 불과하다.

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제도적으로는 지도교수를 보직해 계와 연결시켜 일의 책임감 등을 심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또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나 분위기조성이 안 돼서 그런지 학생들이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있다"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경주교수(경상대 고시반 지도교수)도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나 1차합격자 등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시반관계자들은 학교당국이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고시준비생들도 조금더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학교당국은 이들에게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고시반행정을 전적으로 단과대에 일임한 채 활성화방안 등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학교당국이 고시반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는 예산문제 등 상당히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고시반을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준비생들만을 위한 곳이라 생각하는 고정된 시각 때문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넓게는 언론사·공무원·세무사·교원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고시반을 활성화한다는 시각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법정대고시반이나 경상대고시반의 경우 고시준비생 이외의 시험들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충남대의 경우 비록 사법·행정·기술고시·공인회계사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하나 고시관을 독립시켜 학생처장이 직접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지도교수 및 전임조교를 두는 한편 고시관 운영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합격자를 배출, 최근 4년간 4대국가고시 합격자가 33명에 이르고 있다.

물론 고시반에 들어와 고시준비를 하거나 기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므로 학교당국에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성취가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또한 학내의 다른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학교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내의 여론이다.

80년도 우리대학이 아래동으로

이전할 당시 용담캠퍼스에 고시반을 처음 만드는 데 관여했다는 부만근교수(법정대 학장·행정학과)는 "고시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독립된 고시원이 있어야 한다"며 "이 고시원에 사법·행정·외무·기술고시와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유능한 학생들을 엄격히 선발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집중지도, 관리하고 우수한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활성화방안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물론 당장은 현실적으로 독립된 고시원 건물마련은 어렵더라도 고시반 공간을 좀더 확보해야 한다. 특히 8개월째 빈공간으로 방치돼 있는 법정대 중강당 2층의 옛 제대신문사 자리는 고시반공간으로 활용할만한 자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기획연재한 '대학 순위가 바뀌고 있다' 시리즈가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은 적이 있다. 이 기획의 마지막 부분은 졸업생의 사회진출문제였는데, 그중 4대고시 성적이나 법조계인사 등의 수를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세상에서 대학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을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평가에서 같은 지방국립대학인 경북대나 부산대가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명문대학의 이미지를 굳게 심은 사례를 우리대학에서도 고시반활성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학교의 당국자들은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대학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박병준기자)

인터뷰 『제주의 농업과 경제』 발행인 강지용교수

“개방시대의 지역농업 방향제시에 역점”

지난 11월5일 우리대학 교직원식당에서는 교수와 농민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의 농업과 경제』창간을 축하하는 조촐한 기념식이 있었다. 제주농업의 미래를 연구하는 농업전문지 『제주의 농업과 경제』를 펴낸 제주농업연구소 소장 강지용교수를 만났다.

△『농업과 경제』를 창간하게 된 동기는?

—UR등으로 어려워지는 농업여건을 보면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농업전문잡지를 생각하던 차에 작년에 일련된 일본동경대학에 객원연구원으로 가서보니(47개월 중에 30여개 현을 돌아다녔는데) 일본에는 각 지역마다 농업전문잡지가 하나씩은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농업전문잡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됐다. 돌아오자마자 농과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농업연구소를 창립하고 격월간으로 『농업과 경제』를 발행하기로 결정해 이번에 창간호를 내보내게 됐다.

△앞으로 운영방침은?

—창간호는 아무래도 처음이라 만들고 나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다 심층적으로 제주농업의 현안을 다뤄야 하는데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것 같고... 여러가지로 부끄러운 생각뿐이다. 그러나 전국 어느 대학도 대학 자체의 힘으로 지역농업을 위한 농업전문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는 자부심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나갈 생각이다. 앞으로는 우선 편집위원들(강경선·강동일·강대수·김경택·배종희·소인섭·송창길·유영봉·현공남·현해남교수)이 제주도의 현안 농업문제를 설정, 이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50%의 비중을, 해외의 유망농업을 소개하는데 40%의 비중을, 유망농업을 소개하고 농업의욕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제주농업의 명인을 찾아서'라는 연도 연재할 것이고 농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도 보다 참신한 것으로 계속 실을 생각이다. 농민들이 관심을 갖고 읽고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필요한 잡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농업연구소 주최로 농업문제에 관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미처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개방으로 임계될 피해가 가장 큰 문제다. 70년대 유채와 고구마가 사라졌고, 80년대 바나나가 무너졌다. 수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한 일이다. 또한 섬이라는 지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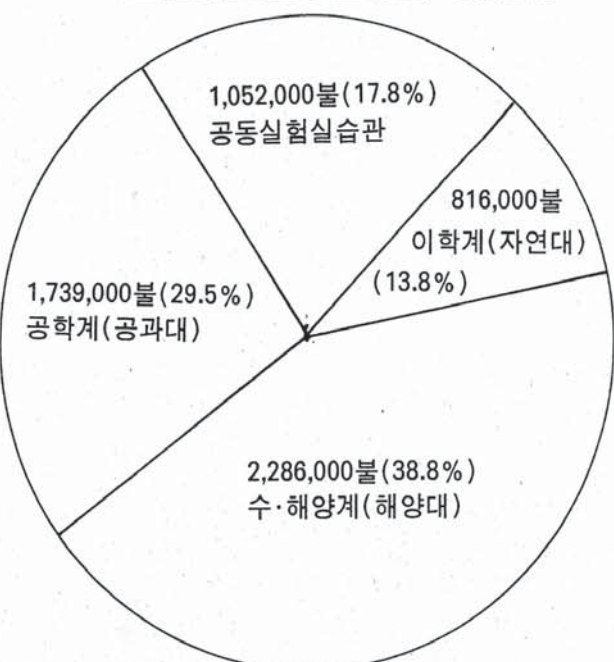
제약으로 인한 유통구조의 복잡, 지나치게 감귤일색인 농업구조, 규모의 영소성, 농업이탈인구의 생존대책등 앞으로 『농업과 경제』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진단할 예정이다.

△제주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과대가 발전해야 할텐데?

—UR이 타결되고 나서도 농과대에서 관련된 글을 한번도 내보내지 못했다. 학생들도 제대로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학교측에서도 농과대에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농과대뿐 아니라 우리대학 전체가 총체적 위기상태에 있다.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학교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총장과 학장, 보직교수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지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공과대가 아니라 농과대를 지원, 육성하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우리학교에서 가장 가능성이 큰 학과가 관광과 원예, 증식학과라고 생각한다. 공과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애초에 기대도 안했지만 농업전문지를 발간하는데 학교서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농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하는데 제대로 알면 그렇지 않은 것이다. 덴마크나 네덜란드도 농산물 수출로 국가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라는 거대시장을 겨냥해서 보다 기술개발도 하고 이제 기술적으로 농업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姜]

◇그림으로 보는 뉴스



〈'94년~'98년 IBRD교육차관 자금배정내역〉

80년도 우리대학이 아래동으로

■LAN의 이해와 활용

LAN이란 무엇인가

우리대학 전자계산소에서는 학내 전산화사업의 하나로 LAN을 오는 11월중순에 착공하여 내년초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보의 전달·보관, 처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LAN은 제대로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해와 활용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LAN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총3회에 걸쳐 본 연재물을 싣는다. (역은이 씀)

이상적인 통신수단은 인간의 의사나 느낌을 언제, 어디든지 전달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래에 들어와서 사무실, 공장, 연구소, 대학

등 모든 분야의 업종을 불문하고 워드프로세서, PC 및 워크스테이션 등의 다양한 전산기기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이들기가 상호간의 호스트 컴퓨터간에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더욱 증

대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기업의 빌딩내나 대학과 같은 밀집된 건물에 분산되어 있는 디스크, 저장장치, 레이저프린터 등의 고가의 장비를 여러이용자가 공유하고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LAN:Local Area Network)이 출현하게 되었다.

Local Area Network의 약어인 LAN은 즉, L(Local): 특정하게 제한된, A(Area): 지역에서, N(Network): 컴퓨터의 data(정보)를 고속으로 상호 통신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LAN은 전송매체로 동축케이블이나 동선을 사용하며 전송속도는 10Mbps이내로 전송거리는 반경 3km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발

전에 따라 여러가지의 전송매체가 개발되어 광케이블을 전송매체로 사용되는 고속 LAN인 FDDI(Fiber Distributed Dual Interface)도 등장하게 되었다. FDDI는 LAN 기술을 바탕으로 광케이블을 통해 100Mbps의 전송속도를 제공해주며 서버넷을 연결하는 백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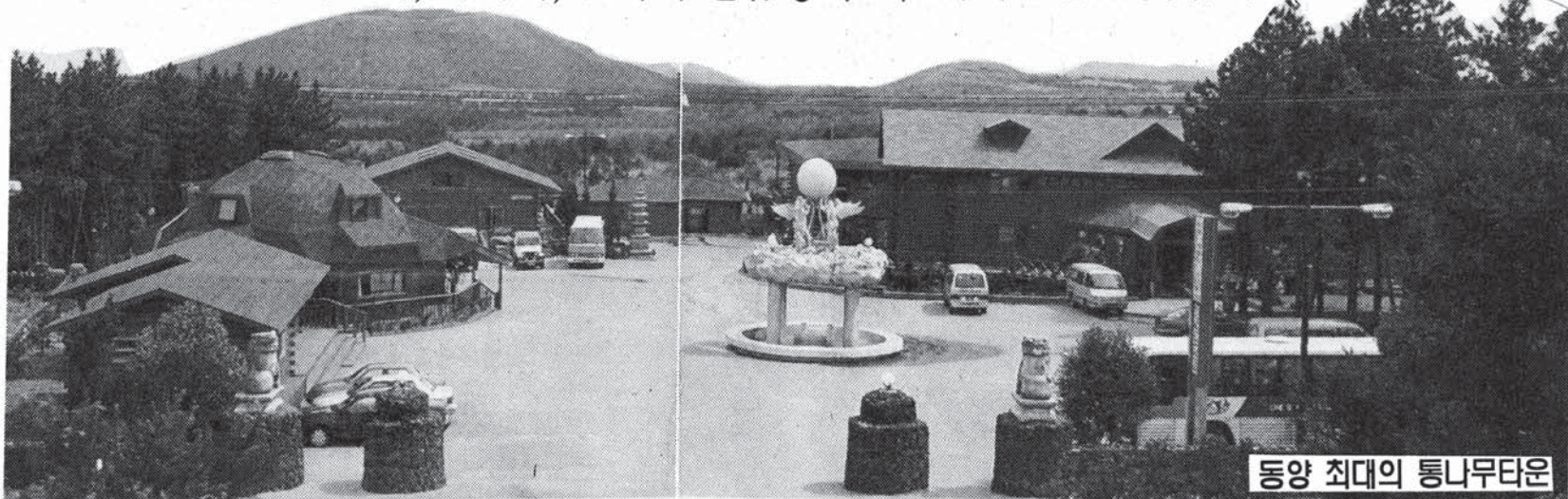
또한 LAN이 구내 통신환경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LAN을 공통통신망을 통해 원거리까지 확장 및 연결할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고속데이터 통신망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윤성보

(전산소시스템연구부)

제주인의 지성과 감성하우스! —명진리조트

“졸업사은회, 세미나, 도자기 실습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양 최대의 통나무타운

제주시 22km

제주시—표선—중산간도로

산굼부리 4.8km

명진리조트

비자림 12km

성읍리 8km

—도자기 특선 이벤트—

- 하나: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도자기 실습행사
- 둘: 친구, 연인, 가족, 각 모임을 위한 도자기 실습행사 (유치원생부터 가능)
부문: ◇그림 및 친필기입 ◇조각 ◇테라코타 (각 부문 5,000원부터 실습가능)
- 셋: 연약식, 약혼식, 결혼식 등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 도자기 제작 가능(손수 만들어 선물로 주고 받을 수 있음)

주요사업

- 세미나실·다목적홀
- 예약식·전통혼례장
- 레스토랑(한식 및 혼재바베큐)
- 휴게소(커피숍·라테일바·스낵코너)
- 숙박(로그하우스), 놀이동산
- 도자기(탐라, 민속, 생활, 인테리어도자기)
- “제주에서 세계를” 미니어취(세계조형건축물OPEN예정)

※단체 예약시 대형·중형버스·봉고 무료지원.



제주명진리조트
CHEJU MYONGJIN RESORT

휴양소: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송당리 2610

TEL:(064)82-5092, 5192, 5292

FAX:(064)82-5272

서평 『위기에 선 가족』 전병재 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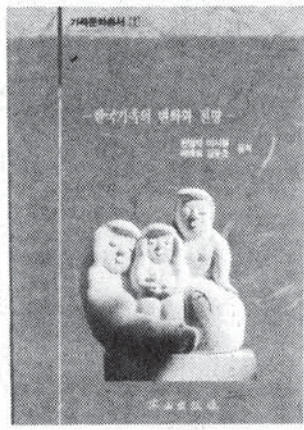
사회문제가 된 현대 가족상황을 포출

더러는 가족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집안일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나 우리사회에서는 여태까지 '내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나', '내 집안일에 무슨 참견이냐'는 식으로 부부갈등, 자녀교육, 노인부양 등 갖가지 가족문제를 가정의 울타리 속에 국한시키려는 습성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매스컴의 자극적인 보도 자세를 심본 고려하더라도 울돌이 연거푸 발생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진단은 우리 사회의 가정에 대한 위기의식을 조장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제 가족문제는 더이상 개인과 가족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이 새삼 확인된 셈이다.

올해 중반에 출간된 『위기에 선 가족』은 바로 사회문제로서의 오늘날의 가족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의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고자"하는 고민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필자가 각기 다른 네 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1장 "현대가족은 위기인가" (전병재)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문제가 산업화·서구화의 과정



에서 올바른 가족의식과 가족상을 분명하게 정립하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현재의 가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공동체를 튼튼하게 한 위에 가족 사랑을 이웃과 사회일반으로 확산시키는 도덕적 가족주의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2장 "정신과 창구에 비친 가족위기" (이시형)에서는 신경정신과를 찾은 사람들과의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사회 젊은 세대의 행동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사이 젊은 남자들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성향이 높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야만적인 자기주장이 강해져 부부갈등이 잦아지고, 나이가 젊은 부부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미숙성, 충동성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은 가족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장 "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문제 진단" (곽배희)에서는 가정법률상담소를 찾은 사람들의 상담내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과 이혼의 곁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원인의 배후에는 남성중심의 가족제도, 가족제도의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4장 "방송매체를 통해 본 가족" (김문조)에서는 텔레비전 드라마 『결혼』의 내용과 그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분석함으로써 서구사회는 부부관계중심의 가족원리가 지배적이었던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관계중심의 전통적 가족원리가 오늘날의 가족관계와 가족의식에까지 깊이 배어 들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어느 전문학술서적과는 달리 짤막하고 쉽게 써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구체적인 사례들은 흥미를 돋우면서도 필자들이 펼치는 논리의 진지하고 사려깊은 무게가 실려 있다.

"세계 가정의 해"로 저술해 가는 이 즈음에, 이 책은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가꾸어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가족상황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강세현 사회학과 강사)

◇생각해 볼 흡연문화—“연기에 질식하겠네”

강의실·토론자리등서 불쾌감 유발시켜

보행시 담배피우는 모습…꼴불견

최근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환경의 날을 정하는가 하면 세계도처에서는 환경살리기운동이 한창이고 매스컴에서도 너나 할 것없이 환경살리기를 주재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경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세종갤러리에서 열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전시회만이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해 평소 지녔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함께 열렸다.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은 어떤지 학내로 눈을 돌려보자. 강의실 벽이나 휴게실에 빨간 글씨로 써진 '연연'이란 글자가 마치 교훈인 것처럼 붙여진 것을 볼 수 있다.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입에 오르내리고 얘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전에 캠퍼스 곳곳에서 수북히 쌓인 담배꽂초더미를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덜 하다는 얘기를 듣고 행사위원회 등도 잘 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강의실이나 과방 등에서 담배를 피우고 함부로 버리는 것은 남아있다. 강의실 안이나 과방 등 실내에서 담배피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야 할 것이다.

강의실은 말그대로 강의를 받는 교실이며 한 학년 혹은 몇개의 학과가 함께 사용한다. 그런데 강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그것도 문

도 제대로 열여놓지 않고—학우가 있다. 강의를 받기 위해 혹은 강의실에서 무언가 하기위해 문을 열었던 학우가 담배연기때문에 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비단 강의실 뿐만이 아니라 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방에 휴식하러 온 학우나 책을 읽기 위해 온 학우 등 다른 학우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과방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다.

어느 학과에선 과방에서 담배피우면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금연, 금연"하고 외치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나치다 보면 담배불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게돼 옷을 태운다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욱한 담배연기를 보면 그 자리에 있고 싶은 생각이 안들어요"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우도 있다.

이와함께 토론이나 모임 혹은 회의시 담배피우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분과모임을 하는데 담배를 피웠더니 후배로부터 진지한 자리에서 뭘 담배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는 학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양호한 편이다. 대개 담배피우는 것을 질타하면 그것도 이해 못한다고 반박하는 경우도 벌어져 불쾌해도 그냥 놔두는 경우도 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피우고 마시고 난 후 마구 버린 담배꽂초며 종이컵 등을 줍는 관리사 아저씨 아줌마를 보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신세대는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 함부로 버리지도 않습니다."라는 1학년 학우의 말을 믿어본다.

푸른 환경가꾸기는 비단 나무를 심고 꽃을 심는 것만이 아니다. 강의실이나 과방 혹은 모임자리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줄여나가고 피운 후 창문밖으로 혹은 여기저기 버리는 것을 없애나가는데서부터 우리의 환경을 상쾌하게 조성해가는 것이 어떤가. (문화부)

아라시단

콩알을 씹으며

김도균 (국어국문1)

영명이 질기지 못한 나는
영여 한 줄을 해석 못하고
질기게 내리치 못하는 비를
질기게 바라본다

오늘 낮
나뭇잎이 떨어지도록 내리는
한잔의 비에
그녀의 뜸한 사랑한단 말이
또 다시 번지고 말았으니
그녀 또한 되게 질기지 못한 모양이다

불편을 손가락에서 재미로 돌리며
나는 그녀 손에서 재미로 돌아간다는 상상을 해본다
그녀는 깔깔거리며 웃고 방바닥을 뒹굴고
친구에게 수다를 떨고 있다
머리를 가볍게 흔들고
누나가 붉아 온 콩알을 헤뜨게 먹는다

콩알을 먹으면
누나가 붉아 온 콩알을 찍어 먹으면
쓴 웃음이 지어진다
눈에 띄면 입에 담는 습관을 씹으면
심리 물질 속보다 값싼 내 마음이
온통 콩알로 채워지는 것 같다 둥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영어공부나 해볼까 불편을 잡는데
도로 창밖이 눈에 들어온다
이웃집 낮은 지붕에 물방울들이 애처롭게 붙어있었다
그 모양이 꼭 콩알같다
조그만 경사에도 굴러가는 콩알

내마음속의 작은 경사들을 모조리 없애야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고
나는 달려간다
제가 받을게요

■극연 '길 떠나는 가족' 연습현장을 찾아

한 예술가의 삶을 통해 이념·시대에 대한 의문제기

일제시대와 6·25전후시대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요절한 화가 이중섭의 일대기를 다룬 극예술연구회(회장 권길호 식영 3)의 '길 떠나는 가족' (김의경 작) 공연 연차가 한창인 2동 중앙당을 찾았다.

무대 위에서 실제 장면처럼 진지하게 대사와 동작을 연습하는 이, 관객석에서 무대공연 연습하는 동료들 지켜보는 이, 한쪽 구석에서 자기 대사를 연습하는 이, 모두들 진지한 모습이었다.

서선희(생물 4)연출, 안재현(기계공 2)기획의 '길 떠나는 가족'은 지난 9월부터 연습에 들어가 오는 12월 첫 리허설을 갖는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중섭이 오산 학교에서의 미술수학, 동경유학,

마사코와의 만남, 원산에서의 월남행, 피난시절의 막노동, 처자식과의 이별, 부산에서의 중군화가단 생활, 처자식을 만나기 위한 일본 방문, 대구에서의 개인전, 정신분열증에 의한 입원과 거식증으로 죽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런 과정속에 그의 사랑과 예술적 집념,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절망, 어리석은 이데올로기 싸움에 한 예술가가 희생당하는 과정이 밀도 있게 전개된다.

작품 「황소」로 잘 알려진 화가 이중섭에 대해 '길 떠나는 가족'은 이전에 부각됐던 신비적이고 신사적인 인물묘사에서 벗어나 어려운 시대적 난관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신념과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투혼을 그리는 것에 역점을 두

고 있다.

연출을 맡고 있는 서선희학우는 "이중섭은 동화적이기도 하면서 범우주적 세계관을 지닌 화가이며 그의 작품속에는 사물에 대한 애정이 깃들여져 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해박한 눈을 가지고 있다"며 "예술이 뿌리내릴 수 없었던 시대에 더이상 그림그리기를 거부하다 죽어간 한 예술가의 순도(殉道)적 자세를 통해 시대와 예술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물음을 제시했다"고 덧붙인다.

하나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들간의 팀웍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극연에서는 합숙훈련도 가졌고 무엇보다도 회원들 서로가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는 연습장소가 없



◇극예술연구회의 '길 떠나는 가족'연습장면.

어서 정전공급하면서 말았다. 1982년 독자적인 동아리로 등록되며 탄생한 극예술연구회는 그동안 49편의 작품과 130여회의 공연을 올리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낮에도 별이 보고 싶다"라는

출연진들의 목소리를 뒤로 하며 기자는 발길을 돌렸다. 오는 11월 19일·20일 양일간(오후 3시, 7시)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막이 오르는 이번 '길 떠나는 가족'이 성공적인 공연을 기대해본다. (유연선기자)

중앙일보가 신문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색판신문,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 경제섹션, 스포츠섹션
중앙일보가 3색판신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新聞史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48면으로 증편하고, 원하는 정보를 읽기 편하게 3개 섹션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색판신문, 중앙일보—한국 新聞史의 큰 역사로 남을 중앙일보를 지금 만나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정보를 드립니다.

종합뉴스섹션
정치, 사회 등 국내외의 생생한 뉴스를 전문기자의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로 한차원 높은 정보로 다시 가공한 기사—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섹션
유통, 산업, 부동산, 국제경제 등 경제관련 정보를 경제전문 기자가 심층 분석하여 알기 쉽게 풀어쓴 기사—중앙일보 경제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섹션
스포츠, 레저, 연예, 방송 등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한 신세대의 관심사를 꼼꼼히 챙겨 신선함을 안겨 드리는 재미있고 알찬 정보—중앙일보 스포츠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널리즘 중앙일보—내년 봄부터 아침에 만나십시오